'독립'의 정치

— 고려말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실지회복 전쟁 —

金 永 壽 (한국정치연구소)

Ⅰ. 서론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전쟁이다.[1] 이는 '안전'(security)이야말로 국가의 지고한 목표라는 의미이다. 한 국가가 안전을 상실하여 타국에 지배될 때,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속성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것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2] 한 국가의 보존이 지닌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조국의 안위가 달린 절대적인 문제일 때,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자비로운지 무자비한지, 훌륭한지 파렴치한지, 일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나라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최고의, 어떠한 수단이라도 취해야 한다.[3]

그러나 어떤 경우 정치가들은 "조국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의 안전"을 위해 국가를 적국에 넘겨준다. 혹은 "조국"이 아닌 "권력"을 위해 적국에 저항하기도 한다. 몽고의 고려 침략기에 두 가지 일이 모두 발생했다. 무신집권자들은 '권력의 안전'을 위해 30년 동안 저항했다. 그 반면 고려 왕실은 무신집권자

---

1) 具永祿, 『人間과 戰爭』(4판, 서울: 法文社, 1982).

2) 위의 책, p.23, 39. 李承晩의 『獨立精神』(서울: 正東出版社, 1993)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쓰여 있다: "There is no Law higher than that of self Preservation."

3) N. Machiavelli, *Discourses*, in The Chief Works and Others, vol. 1, Tr. by Allan Gilbert(three volumes;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65), Book 3, chap. 41, p.519.

들을 제거하기 위해 몽고와 타협했다.

몽고의 침략은 당시까지 한반도인들이 경험했던 최대의 재앙이었다. 그 결과 漢四郡 이후 처음으로 1백년동안 이민족의 직접 지배를 허용했다. 원의 지배로 인해 고려는 무신통치에 이어 두 번째 몰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高麗史』 편찬자는, "元朝를 섬김에 이르러서는 誅求가 한이 없었다. 朝覲(황제의 알현)·饋遣(사신 접대)과 國贐(국가적인 外遊) 등의 일로 집집마다 뽑아내고 戶마다 거두어 만단으로 科斂을 징수했다. 이로 말미암아 호구가 날마다 줄고 國勢는 더욱 약해져 고려의 基業이 마침내 쇠했다"고 평가했다.[4] 나아가 고려는 국가의 정신적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했을 때, 고려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 집권 초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1년이 지나지 않아 좌초되었다. 그 원인은 원과 결탁된 특권세력들 때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원의 지배체제 때문이었다. 1356년(공민왕 5) 왕은 궁정 쿠데타를 통해 친원파를 제거하고, 원에 복속된 북방의 실지를 백여년만에 회복했다.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개혁에 반대하는 특권세력을 제압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원지배의 정치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공민왕의 반원정책을 살펴보고, 셋째, 그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려 한다.

Ⅱ. 원 지배의 이중적 성격: 침략자와 수호자

일반적인 견해처럼 몽고가 무자비한 지배자였던 것만은 아니다. 원의 지배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고려 왕조의 수호자이자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이기도 했다. 기존연구에서 이러한 점은 거의 간과되었다. 아래에서는 원의 지배가 지닌 부정적 성격과 긍정적 성격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첫째,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겠다. 한반도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토에 걸쳐 완전한 정치적 지배를 허용했다. 또한 고려는 무신집권기에 본격화된 정치적 폐단을 개혁할 수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악화되었다. 원의 침략

4) 『高麗史』 卷32 食貨志1, 序.

으로 인해, 고려가 겪었던 첫 경험은 공포와 철저한 무력감이었다. 몽고의 침략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력했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사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적이 없었다. 원 世祖 쿠빌라이는 "唐太宗도 친히 쳐서 능히 항복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세자가 스스로 와 우리에게 歸服하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또 "이제 광대한 하늘 아래에 臣服하지 아니한 자는 오직 고려와 宋 뿐"이라고 하였다.[5]

몽고군은 고종 18년(1231)이래 30년 동안 고려 전역을 유린했다.[6] 그들은 지나는 곳 모두를 초토화시켰다. 고종 41년은 특히 심하여 "이 해에 몽병에게 사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백 여인이요, 살륙된 자가 가히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지나가는 州郡마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한다.[7] 공포가 백성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의 저항책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8]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9]

그런데 백성들과 달리 고려 정부의 대몽 항전은 애국적 의도때문은 아니었다.[10] 그 반대로 무신집권자들의 사적인 권력 유지가 주요 목적이었다. 백성들

---

5) 『高麗史』 卷25, 元宗 元年 3月 丁亥.

6) "(고종 18년) 11월 甲辰, 平州에서 몽고의 사신(持牒者)을 가두자, 蒙古兵이 먼저 이를 盡滅하고자 하였다. 庚戌 밤 새벽, 성중에 돌입하여 州官을 죽이고 그 성을 무찌르고 人戶를 모두 불태우니 개와 닭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高麗史』 卷23)

7) 『高麗史』 卷24, 高宗 41年 10月 甲午.

8) "고종 19년 8월 己酉 朔에 西京巡撫使 대장군 閔義가 司錄 崔滋溫과 함께 비밀리 장교들을 시켜 達魯花赤을 죽일 것을 꾀했다. 西京人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와같이 하면 우리 서울은 반드시 平州와 같이 몽병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叛하여, 壬戌에 최자온을 잡아 가두"었다(『高麗史』 卷23).

9) 고종말 몽고병에게 잡혀간 溟州衙前 金遷의 어머니는 14년 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 편지에서 "나는 살아서 某州 某里 某家에 이르러 종이 되었는데 주려도 먹지 못하고 추워도 입지 못한다. 낮에는 밭을 매고 밤에는 방아를 찧어 갖은 辛苦를 겪고 있으니 누가 나의 死生을 알리오"라고 하였다. 6년 뒤 김천이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한 할머니가 나와 절하는데, 옷은 헤지고 머리는 흩어졌으며 얼굴에는 때가 껴서, 김천이 보고도 어머니임을 알지 못했다. … 김천이 듣고 내려와 절하고 우니, 어머니가 김천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내 아들이냐. 나는 네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高麗史』 卷121 列傳34, 金遷傳).

10) 이에 대한 견해는 양분된다. 무신정권의 대몽항쟁을 자주성의 발로로 평가한 글로는, 閔丙河, "高麗 武臣執政時代에 對한 一考: 무신정치의 성격과 文臣의 지위를 중심으

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권세력의 수탈과 화려한 생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몽고 사신의 표현대로 "대군이 입경한 이래 하루에 사망자가 기천만이나 되는데, 왕은 일신만을 아끼고 만민의 생명은 不顧"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강화 천도는 무신집권자들의 권력연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11] 다른 한편 중국을 공격하기 앞서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과거의 북방민족들과 달리, 몽고는 30여 년에 걸쳐 파상 공격을 반복하면서 전역을 파괴했다. 고려로서는 원의 요구에 따르던지, 아니면 무한히 고통을 참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복은 또 다른 예속과 고통의 시작이었다. 고종 45년(1258) 무신정권의 집권자 崔竑가 피살당했다. 1270년까지 또 다른 무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대몽 강화는 중론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려로서는 처음 당하는 굴욕적인 사태였지만, 원에 정복당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호조건이었다. 耶律楚材의 영향을 받아 중국화를 이상으로 삼았던 쿠빌라이(忽必烈)는[12] 江淮宣撫使 趙良弼의 진언에 따라 온건책을 채택했다.[13] 1260년 원은, "衣冠은 본국의 풍속을 따르고 모두 고치지 말 것"이며 "진실로 백성을 裕足케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형편에 맞게 적절히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14] 고려는 예전과 같이 형식적 사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

로," 『史學硏究』 6, 1959. 권력보존을 위한 행위로 보는 견해로는 朴菖熙, "武臣政權時代의 文人", 『한국사』 7(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金潤坤, "江華遷都의 背景에 관해서", 『大邱史學』 15·16합집, 1978; 朴龍雲, 『高麗時代史』(서울: 일지사, 1993), pp.494-495.

11) 參知政事 兪升旦은 천도할 경우, "변방의 백성들 중 丁壯은 칼날에 다 죽게되고 노약자는 붙들려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사도 그 점을 보여준다: "고종 19년 6월 乙丑에 崔瑀가 왕을 협박하여 강화에 천도하였다."(『高麗史』 卷23); "고종 45년 12월 甲辰에 ··· 達魯花赤에게 청하기를 「본국이 事大의 誠을 다하지 못한 소이는 단지 權臣이 정사를 擅斷하여 內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지금은 崔竑가 이미 죽었으므로 곧 바다에서 나와 육지에 나아가 상국의 명을 듣고자 하나 ···"(『高麗史』 卷24).

12) 徐連達 外, 『중국통사』, 중국사연구회 옮김(서울: 청년사, 1994), pp.576-580.

13) 『高麗史』 卷25, 元宗 元年 10月 丁亥.

14) 『高麗史』 卷25, 元宗 1年 8月 壬子. 元의 姚燧에 따르면, 별도로 종묘제사를 지내고 독립적인 政令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는 고려가 유일했다[『牧庵集』 卷3; 金庠基, 『新編高麗時代史』(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516에서 재인용].

였다. 그러나 원은 국왕 임명권과 정동행성의 설치, 친원 권력집단의 조성을 통해 고려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세 집단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원은 경쟁적인 충성을 확보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정치적 개선은 거의 불가능했다. 충선왕과 충목왕대의 개혁 시도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元宗이래 고려의 모든 왕들은 원에 의해 지명되었다. 그 결과 고려의 왕권은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정했다. 잠재적인 왕권 경쟁자들은 원의 중앙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다. 야심가들은 그 주위에 결집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음모를 꾸몄다. 권력장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들은 고려를 원의 한 부속지로 바꿀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음모가 너무 치열했으므로 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은 모두 부자사이에 심한 권력투쟁을 겪었다. 그들은 서로 政敵이 되었고, 충선왕은 世子 鑑을 죽였다. 왕들은 권력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일생을 소진했다. 원으로부터 충성을 의심받아서는 안됐다. 가장 손쉬운 일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고, 고위정치가들을 충분히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국력이 단순히 약해졌다는 것 이상이다. 왕과 정치가들은 이 불안정하고 치열한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무엇이 국가에 바람직한지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이상적인 목표를 꿈꾸지 않았으며, 생명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만으로 만족했다. 충숙왕은 원의 의심을 받아 "燕京에 5년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근심으로 성품이 상하여 나라에 돌아와서도 항상 깊은 궁전에 거처하고 늘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政事를 친히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崔安道가 金之鏡, 申時用, 僧 祖倫 등과 함께 권력을 잡고 賣官賣獄을 자행했으며, 臺諫의 章疏는 중간에 저지하여 奏達하지 않았다"고 한다.[15]

원의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충선왕조차 철저한 개혁은 회피했다. 그는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개혁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소진시킬 정도의 인내력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회가 왔지만, 그는 정치적 위업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16] 高宗이래의 모든 왕들은 배

15) 『高麗史』 卷124 列傳37, 崔安道傳.

16) 그는 공민왕과 달리 왕위계승의 정통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자신의 親母가 원의 공주(齊國大長公主)인데다 그 자신이 원의 중앙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풍부한 유교적 교양을 갖추고 있어 정치적 비전에 있어서도 공민왕보다 뛰어났다. 그는 현실적 힘과 이상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아직 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

후에서 키를 움직이고 있는 원을 의식해야 했다. 원은 왕위는 물론이고 그들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권력집단인 친원 집권세력인 이른바 '權門世族'은 토지와 백성, 관직, 군사력을 모두 사적으로 독점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공적인 성격은 거의 와해되었다. 이들은 원 중앙정치와의 복잡한 연계를 통해, 왕의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그 자신들은 중복적인 혼인과 관직배분을 통해 동질적이고 커다란 특권집단을 형성했다. 충선왕과 충목왕의 개혁은 이들에 의해 좌초되었고, 충혜왕은 죽음을 당했다.

둘째, 원 지배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자. 원은 고려 왕실의 수호자이자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이기도 했다. 고려에게 원의 존재는 이율배반적이었다. 고려 왕실은 원에 항복하는 조건으로 무신 집권자의 제거를 요청했다. 또한 원의 힘을 빌려 또 다른 권력자의 출현과 백성들의 반란을 저지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고려는 毅宗 이래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은 고려정치의 혁신을 가로막는 근본적 장애였지만, 동시에 왕실의 수호자이기도 했다.

고종이 죽자 원은 당시 항복을 위해 원에 파견되었던 태자 倎을 고려 국왕으로 임명했다. 그 詔書에서 원은, "다시 감히 亂을 일으켜 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 임금을 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곧 우리 典刑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나라에 常憲이 있으니, 사람마다 이를 誅戮해야 한다"고 선언했다.[17] 이는 원이 고려의 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元宗 11년 왕이 몽고에 入朝하여 세자 諶과 몽고공주와의 결혼을 청하고 군사지원을 요청함에 의해 확고해졌다. 몽고의 습속에서 결혼은 合族을 의미했다. 원종은 몽고의 都堂에 올리는 글에서, "군사 약간을 허락하여 주면 함께 가서 곧 개성에 도착하여, 강화 島內의 臣民을 招諭하고 모두 出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權臣을 제거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存撫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원은 즉각 군대를 출동시켰다.[18] 왕은 또한 다루가치(達魯花赤: 斷事官)의 대동을 원했다.

던 시절에 그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 결과 원의 간섭으로 10여 년 동안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정치에서 은퇴한 뒤 그는 고려로부터 지출되는 막대한 부와 원의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한가로이 즐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그룹들을 모아 고매한 학문적 토론 속에서 정신적 만족을 향유하였다.

17) 『高麗史』 卷25, 元宗 元年 4月 丙午.

원에 의한 왕실의 보호는 고려말까지 계속되었다. 공민왕 5년 국가원로들이 반란자인 趙日新을 비판하여 都僉議司에 올린 상소에서도 그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 聖元에 歸附한 이래 (고려 왕은) 대대로 (元) 公主의 배필이 되었으므로, 義로는 君臣이 되고 親으로는 甥舅가 되어, 빈번하게 은총을 내리는 것이 진실로 타국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비록 元惡(元凶)과 大憝(대대: 大惡)가 있더라도 聖元의 威德을 두려워하여 감히 조금도 侮慢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일신은 狂妄한 일개 小人으로 감히 이처럼 난을 일으켰[습니다.][19]

또 정동행성에 올린 정부관리들의 상소에서도 "본국은 皇元에 귀부한지 지금까지 80여 년에, 우러러 어루만져 주는 덕을 입고 공경히 制御하여 주시는 위엄을 받들어, 백성들이 안도하고 나라가 편안함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분수를 범하면 반드시 베일 것을 알므로 어찌 僭越하게 명분을 범하여 亂逆을 꾀하는 자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20]

원은 또한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왔다. 고려는 원의 울타리에 갇혀 괴로움을 당했지만, 다른 한편 전쟁도 없었다. 평화는 원의 善意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힘이 가져오는 긍정적 요소였다.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이었다. 그러나 어떤 자연적인 재난도 전쟁보다 더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고려의 북방변경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삼면에 걸쳐 길게 펼쳐진 해안은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몽고군과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백성들이 받은 고통을 고려한다면, 전쟁이 없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李穡은 공민왕 원년(1352)의 상소에서 "우리 국가가 熙洽漸磨(희흡점마: 明君이 잇달아 계승하여 천하가 태평하고, 좋은 방향으로 感化함)하고, 東漸을 더하여(동으로 여진을 평정함) 태평을 누린지 백 년간에 백성이 兵禍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다.[21]

---

18) 『高麗史』 卷26, 元宗 11年 2月 辛未. 후원군까지 동원하려 했으므로, 왕은 놀라서 "만일 前後 大軍이 나라에 이르게 되면 백성들은 놀라 도망할 것이요, 그 보급품도 마련하기 어려울 듯하오니 청컨대 후군을 중지하시고 또 대군은 개성에 주둔시켜 경계를 넘지 말도록 하소서"라고 요청했다.

19) 『高麗史』 卷131 列傳44, 趙日新傳.

20) 『高麗史』 卷131 列傳44, 趙日新傳.

마지막으로 원의 지배기에 많은 학자 및 정치가들은 처음으로 보편적인 세계문화에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유학의 새로운 경향인 성리학을 습득하고 세계관을 확대할 수 있었다. 제 1세대인 白頤正, 제 2세대 백이정의 제자 李齊賢을 거쳐, 제 3세대 李穡과 그 제자들인 정몽주·정도전을 통해, 성리학은 문명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유학은 처음으로 불교의 초월적 형이상학에 대해 현세적인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을 제시했다. 그 결과 조선이 건국되었다. 1, 2세대의 매개자였던 이제현은 10여 년에 걸친 재원생활을 통하여 당대 최고의 지성에 도달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2]

이상에서 음미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이 초래하는 정치적 결과이다. 이는 대체로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상황이 여의치 못할 경우 이들은 국익을 희생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강화천도가 주로 무신집권자의 이익 때문이었다면, 몽고병의 지원요청은 왕실과 무신집권자의 권력투쟁으로 빚어진 비극적 결말이었다. 원종은 일차적으로 왕실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독립과 자존심을 훼손시켰다. 더욱이 향후 진전을 예측키 어려운 병력동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신들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23] 그런데 국가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무신들의 대몽항쟁은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했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30여 년 동안 작은 섬에 안주하여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講和였다. 무신정권 아래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강화는 곧 그들의 권력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종의 결심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21) 『高麗史』 卷115 列傳28, 李穡傳.

22) 이에 대해서는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 李齊賢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51, 1981. 이색은 이제현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정의 大儒나 고위관리로 牧菴 姚會, 閻子靜, 趙子昂, 元復初, 張養浩가 모두 충선왕의 문하에서 놀았는데, 이제현은 이들 모두와 교제했다. 그리하여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새로워져서, 격려되고 변화되어, 진실로 그 정대하고 고명한 학문을 다 연구했다."(『牧隱集』, 「益齋先生亂稿序」).

23) 『高麗史』 편찬자는 "巨姦이 번갈아 가며 권력을 잡아 임금갈기를 바둑과 장기 두듯이 하고, 强敵이 교대로 침입하여 백성을 草菅처럼 죽이더니, 元宗이 大亂을 危疑에서 진압하여 겨우 조종의 기업을 보존하였다"고 평가했다(『高麗史』, 進高麗史箋).

Ⅲ. 공민왕대 초반(공민왕 1-5년)의 對元政策: 신중한 대결

초년의 공민왕은 냉정한 정치현실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역시 전통적인 정책을 답습했다. 그의 형 충혜왕은 원에 의해 죽음을 당했으며, 아버지인 충숙왕은 평생 위협에 시달렸다. 더구나 그는 왕위 계승전에서 세 차례나 탈락한 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공민왕 원년 2월의 즉위교서는 원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 시작되고 있다.

> 우리 태조께서 삼한을 통일하시고 여러 조상이 相承하여 小로써 大를 섬겼다. 우리 聖元이 일어나자 천하에 앞서 歸附하였다. 우리 忠敬王(元宗)이 世皇(元世祖)을 入覲(원에 들어가 朝覲함)하자 寵錫이 남달랐다. 忠烈·忠宣이 대대로 貳室(駙馬의 居所)에 숙박하였으며, 우리 仁考 忠肅王도 또한 釐降(帝女를 신하에게 降嫁하는 것)의 令을 받아 덕을 이어 나라에 임한지 25년이 되었(다)[24]

또한 고려 원로대신들의 건의에 의해, "천자가 굽어 그 말을 채택한 까닭에 오늘의 錫命(왕위계승의 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3년(1354) 6월 원의 파병요청에 따름으로써 자신의 충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인으로 元順帝의 제 2황후가 된 奇皇后 일족을 보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 또한 측근인 趙日新이 奇氏 일가를 제거하기 위한 난을 일으켰을 때, 재빨리 그를 처형하고 원의 처분에 따랐다. 조일신은 공민왕의 즉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취약한 공민왕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켰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공민왕 초년의 개혁정책은 권문세족의 반발과 기씨 일족의 위세로 인해 좌절되었다.[25] 기철의 제거직후 내린 교서에서 공민왕은 "기철 등이 군주를 전율케 하는 위세를 빙자"했다고 말했다. 7월의 1차 표문에서는 "기철 등이 연이어 원황실의 후궁으로서 혼인을 맺고, 大朝(元)의 위엄을 빌어 기염이 충천하여 國主를 脅制"하였다고 했다.[26] 그러나 왕은 원을 두려워하여 감히 문책하

---

24) 『高麗史』 卷38, 恭愍王 元年 2月 丙子.

25) 이에 대해서는 김영수, "고려 공민왕대 초반기(공민왕 1-5년)의 개혁정치와 반개혁정치의 대립", 『한국정치연구』 6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참고.

26)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6月 乙亥; 7月 戊申.

지 못했다. 일종의 이중권력 상태였던 셈이다. 그 결과 "나라 다스리는 법을 흔들"어 "政令이 이로 인해 좌우되"었고, "기강이 서지 않아 통어할 방술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공민왕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왕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을 경우, 왕은 "그들을 공공연한 적과 같이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역경의 시기가 오면 이들은 반드시 군주를 파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27]

그런데 공민왕이 즉위 초년에 이미 모종의 인식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있다.

> 왕이 원의 제도를 채택하여 辮髮을 하고 胡服을 입고 殿上에 앉아 있었다. 李衍宗이 諫言하기 위해 문밖에서 候問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어전에 나아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미 들어와서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先王의 제도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는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기뻐하여 곧 변발을 끄르고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28]

충선왕과 충혜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민왕의 이런 태도는 특이한 것이었다. 이는 충숙왕이 일찍이 자신에게 몽고식 예절을 행하는 충혜왕에게 "너의 부모는 모두 고려사람인데 어찌 나를 보는데 胡禮를 행"하느냐고 질책했던 것과 같은 문제의식이었다.

공민왕은 즉위 4년(1355) 무렵에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 鄭之祥 사건이 그 예증이다. 정지상은 공민왕을 원에서 宿衛하여 監察持平이 되었다. 공민왕 4년에는 全羅道按廉使였다. 埜思不花란 인물은 고려인으로 원에 들어가 順帝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황제의 복을 빌기 위해 산천에 제사지내는 御香使로 고려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르는 곳마다 방종·횡포하여 지방관들이 많은 곤욕을 당해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全州에 왔을 때 정지상 역시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나 接伴使 洪元哲의 무고로 인해 그는 정지상을 묶고 욕하였다. 이에 정지상은 州吏들을 불러,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기씨를 誅滅하고 다시는 원을 섬기지 않기로 하였으며, 재상 金敬直을 元帥로 삼아

---

27) Machiavelli, *Prince*. in The Chief Works and Others, vol. 1, Tr. by Allan Gilbert(three volumes;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65), p.40.

28) 『高麗史』 卷106 列傳19, 李衍宗傳.

압록강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 사자는 제어하기가 쉽다. 너희들은 무엇이 두려워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 장차 너희 고을을 강등하여 小縣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지상은 야사불화와 홍원철을 구속했다. 또 서울로 올라오면서, 야사불화의 형인 上護軍 徐應呂를 철퇴로 쳐서 죽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29] 공민왕 4년 2월의 일이었다.

공민왕은 깜짝 놀라 그를 巡軍獄에 가두었다. 5월에는 원의 斷事官 買住가 와서 정지상을 국문하였다. 정지상은 무식하고 거친 인물로서, 관리로서는 자격미달자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1년 뒤 사실로 판명되었다는 점이다. 왕은 기철 등을 제거한 뒤 정지상을 석방하여 巡軍提控에 임명하고 侍衛케 하였다.[30] 또 다른 예가 있다.

> (공민왕 5년 3월) 이 달에 우리 桓祖(이성계의 부친 李子春)가 來朝하였다. 왕이 맞이하여 이르기를 "頑民을 撫綏함이 또한 괴롭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이때에 기씨의 족속이 기황후의 권세를 믿고 횡포하였다. 어떤 사람이 밀고하기를 "기철이 가만히 雙城의 叛民과 통하여 맺어 黨援으로 삼고 반역을 도모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환조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 나의 백성을 鎭撫하라. 만약 변이 있거든 마땅히 나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31]

따라서 공민왕은 기철 등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얘기는 당시 상당히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던 것일까? 왜냐하면 정지상은 원에서 숙위했다고는 하나 元邸隨從功臣에 책봉되지 못했고, 다른 공신에 비해 관직도 시원치 않았으므로, 국가의 1급 비밀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민왕이 李子春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겨우 두 번 접한 인물에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설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32]

---

29) 『高麗史』 卷114 列傳27, 鄭之祥傳.
30)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5月 丁酉.
31) 『高麗史』 卷39, 恭愍王 元年 3月 甲辰.
32) 이자춘은 공민왕 4년에 처음 來朝했다(『太祖實錄』 總序, 至正 15年(1355) 乙未).

공민왕 4년 年初에 내린 교서의 내용은 사실 정치상 사건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교서에서 공민왕은 "무릇 너희 모든 관리들은 자신의 직책에 부지런할 것이며, (재판을) 聽訟하는 관리들은 원통하게 잘못된 일과 억울한 일을 심리하되, 위반한 자는 憲司가 이를 탄핵하라"고 말했다.[33] 이 교서는 당시의 정치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어떤 결심을 내포하고 있었다. 공민왕 원년 조일신의 난이래 왕은 기씨 일족과 원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혁을 포기한 상태였다. 정부의 모든 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특히 토지나 노비의 탈점을 둘러싼 분쟁조정기관들은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왕은 돌연히 이 기관들의 정상화를 명령했던 것이다. 이는 원과 권문세족들의 무원칙한 권력행사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였다. 공민왕 3년의 인사가 원의 개입으로 엉망이 되었던 반면, 4년의 인사가 안정을 회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민왕 4년 정월에는 申君平이 左代言, 金續命이 左副代言에 임명되었다. 신군평은 일찍이 친원파의 거두 蔡河中의 贊成事 告身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으며, 충목왕대의 개혁기관인 '整治都監'의 정치관이었다.[34] 김속명은 공민왕의 인척이었으며, 직언으로 유명했다. 공민왕은 감찰과 탄핵기관을 강화했던 것이다.

이런 결심은 또한 정세판단이 결부되어 있었다고 본다. 공민왕 3년 6월 채하중이 원의 파병요청을 전할 무렵, "이때에 원의 정사가 퇴패하여 하남의 妖寇韓山童, 韓咬兒 등이 비로소 난을 일으켰다. 潁川의 妖人 劉復通이 또한 군사를 일으켜 紅巾을 이름으로 삼고, 그 무리 關先生, 沙劉二, 王士誠 등과 더불어 중원을 寇掠하여 산동에 分據하니, 그 세가 크게 떨치고 도적이 떼를 지어 일어나 천하가 크게 요란하였다"고 한다.[35] 무엇보다도 원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소국인 고려에 원군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원이 어느 정도 쇠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였다.

공민왕 3년 10월에는 前右政丞 廉悌臣이, 3년 11월에는 印安이 원으로부터 귀국했다. 인안은 왕에게 戰況을 상세히 보고했다. 4년 5월에는 南征萬戶 權謙, 元顥, 印瑠이 원으로부터 돌아와 "南賊이 날로 盛하므로 아군이 六合城을 함락

33) 『高麗史』 卷38, 恭愍王 4年 正月 戊辰.
34) 『高麗史』 卷109 列傳22, 申君平.
35) 『高麗史』 卷38, 恭愍王 3年 6月 辛卯 朔.

하고 또 淮安路에 옮겨 막는다"고 보고하였다.[36] 공민왕은 행동을 취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마 원은 고려에 보낼 병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은 쇠약해졌으나 아직 결정적으로 붕괴된 것은 아니었다. 최악의 경우, 즉 원이 고려를 정벌하기로 결심한다면 고려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지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민왕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중국에 파병된 중요한 장군들은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Ⅳ. 공민왕 5년의 對元政策: 정면 대결

1. 궁정쿠데타와 친원파의 제거

공민왕 4년 10월 乙亥에 공민왕은 최측근인 金鏞, 洪義, 鄭世雲, 柳淑에게 날마다 궁궐에 들어와 대소사 일체를 啓稟케 했다. 이것이 본격적인 준비작업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37] 기철 측에서도 대비책에 착수했던 것 같다. 李子春이 알렸다고 생각되는 정보로 미루어 보아, 공민왕 5년 3월경에는 기철 측도 상당한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원의 사신을 통해 전달한 공민왕 5년 7월의 1차 表文은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기철등이 스스로 죄가 차고 악이 쌓이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 망녕되이 생각하기를, 천하가 요란하고 전쟁이 바야흐로 치열하게 되니 그 권세를 공고히 하려고 중외의 官司에 다 친척을 두었습니다. 무릇 요직이란 심복 아닌 이가 없으며 마음대로 병기를 제조하여 射御를 연습하되 공공연하게 이를 행하여 조금도 은닉함이 없었습니다. 訛言으로 선동하여 중인의 귀를 혹란케 하더니, 금년 5월 18일에 무뢰배를 소집하여 일시에 함께 일어나 배에 병기를 싣고 이미 江口에 이르렀습

36) 『高麗史』 卷38, 恭愍王 4年 5月 壬子.

37) 김용은 이 해 12월 金普를 무고한 죄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高麗史』 卷38). 홍의는 기철 일파를 제거할 때 기철 등을 유인하다가 죽음을 당했다(『高麗史』 卷131 列傳44, 奇轍傳). 정세운과 유숙은 공민왕 8년 6월에 기철을 주살한 일등공신에 책봉되었다. (『高麗史』 卷39).

니다. 또 수명의 도배로 하여금 天使(원의 사신)라 하여 詔旨(황제의 조칙)가 있다 일컫고, 벌써 궁문에 이르러 장차 우리 군신을 섬멸함으로써 저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 안위와 사생이 삽시간에 달렸었습니다.[38]

위의 기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철과 權謙 등이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기회를 기다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심성 있게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세력을 과시하는 데 만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철 등의 행위는 섣부른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사적인 저항 이외의 방법을 남겨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39] 오랜 세월 동안 원의 지지를 받는 측이 권력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민왕은 별다른 존재가 아니었는지 모른다. 어느 정치가도 황후의 일족을 살해하고 원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공민왕으로서도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表文이 전하는 바처럼 그들이 선제공격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列傳」의 기사를 보면, "왕이 먼저 알고 曲宴(小宴)을 칭탁하여 宰樞들을 모두 궁정에 모이게 하고, 判密直 洪義, 宰臣 裵天慶을 보내어 奇轍, 盧頊, 權謙 및 기철의 아들 찬성사 奇有傑, 조카 奇完者不花와 權謙의 아들 萬戶 權恒과 舍人 權和尙과 盧頊의 아들 行省郎中 盧濟 등을 불렀다"고 한다.

공민왕 5년 5월 丁酉에 기철, 그리고 딸을 바쳐 원황실과 인척을 맺었던 노책과 권겸, 국내에 있었던 그 일족은 모두 죽었다. 기습적인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이 암살극은 기철 등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는지를 반증해준다. 그들은 단순히 왕명으로 체포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재추들을 궁중에 모은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방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거사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공민왕 8년에 기철을 주살한 공로로 공신에 책봉된 사람은 불과 19인뿐이다.[40] 양대 세력의 격돌이 상당히 널

---

38) 『高麗史』 卷39.

39) Machiavelli, *Discourses*, Book 3, chap. 6, Conspiracies, p.438.

40) 1등공신 洪彦博, 慶千興, 安祐, 鄭世雲, 黃裳, 柳淑, 睦仁吉, 李蒙古大. 2등공신 金得培, 金元鳳, 金琳, 陳永緖, 金滑, 金元命, 李云牧, 文璟, 朱永世, 方節朶赤帖木兒, 張必禮(『高麗史』 卷39, 恭愍王 8年 6月 丁亥)

리 예측되었던 것에 비해 참가자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망하였거나 혹은 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두 경우 모두일 수도 있다.

공신을 책봉하는 교서는 서두에서 특별히 洪彦博의 功을 거론하여 "南陽侯 홍언박이 분연히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賊徒를 진멸"했다고 한다. 홍언박에 이어 두 번째로 거명된 인물은 慶千興이다. 양자는 공히 공민왕의 생모인 明德太后 洪氏의 인척들이었다. 김속명의 형인 金元命도 인척이었다. 鄭世雲, 柳淑, 睦仁吉, 金湑는 연저수종공신들이다. 安祐, 黃裳, 金得培는 勇略이 뛰어난 장군들이다. 거사는 인척과 측근, 몇몇 무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원된 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密直 姜仲卿, 大護軍 睦仁吉, 于達赤 李蒙古大가 장사들을 매복시켜 기철과 권겸을 격살했다. 그 다음 盧頊과 기철·권겸의 일족 및 私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禁衛4番의 군사들이 동원되어 시가전을 벌였다.[41] 즉 巡軍같이 공식적인 병력은 동원되지 않았고 왕의 경호대만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공민왕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요점을 힘의 크기가 아니라 비밀의 유지와 전격적인 기습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예기치 않은 시점에 거사했기 때문이다. 기만과 과단성은 공민왕의 뛰어난 정치적 기술 중 하나였다. 자기를 압도하는 힘을 전복하기 위한 일은 계획과 실행과 수습에 대단한 위험이 수반된다. 가장 일반적인 위험은 계획의 누설이다. 그런데 가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배반, 부주의, 경솔함을 막을만한 수단이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담자 중 누구에게도 밀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위험은 가담자들의 동요이다. 이것은 대개 보다 완벽한 거사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발생한다.[42] 실제로 거사 당일 기철과 권겸 외의 인물이 도착하지 않자, 경천흥은 "만약 일이 누설되면 변이 불의에 일어날 것이니, 빨리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공민왕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게 했다.[43]

거사가 성공하자 공민왕은 곧바로 고위직 인사교체를 단행했다. 右政丞에

---

41) 『高麗史』 卷131, 列傳44, 奇轍傳.

42) Machiavelli, *Discourses*, Book 3, chap. 6, Conspiracies, pp.433-434.

43) 『高麗史』 卷131 列傳44, 奇轍傳.

洪彦博, 左政丞에 尹桓,[44] 判三司事에 元顥, 贊成事에 許伯·黃石奇, 三司左右使에 全普門·韓可貴, 僉議評理에 金逸逢·金鏞·印瑞을 임명했다.[45] 전보문, 한가귀, 김일봉, 김용은 모두 연저수종공신들이다. 황석기는 기철주살 1등공신인 黃裳의 부친이고 그 자신이 이 거사에 참여했다. 인당은 유능한 장군이다. 거사참여인사와 측근들이 주축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비상내각인 듯하다.

두 번째 조치는 원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 사안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공민왕은 거사에 성공한 당일에 악명높은 征東行省 理問所를 혁파했다. 정동행성은 장기간에 걸쳐 고려정치를 혼란시킨 기관이었다. 行省은 行中書省 또는 行尙書省의 약어이다. 관직개편에 따라 중서성 혹은 상서성에 속했다. 원나라 초기에는 중앙행정청인 중서성의 출장소 성격을 띠어 정벌을 위해 해당지역의 軍民을 다스렸으나, 뒤에는 상설 행정기관화되었다. 지방의 錢糧·兵甲·屯種·漕運으로부터 軍國의 重事에 이르기까지 관장했다. 정동행성은 일본정벌을 위해 충렬왕 6년 쿠빌라이가 고려에 설치한 기관이다.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충렬왕 9년 정월에 다시 설치되었고, 충렬왕이 최고책임자인 征東行省左丞相(종1품)에 임명되었다. 일본정벌이 포기된 후에도 계속 존속되었고, 역대 고려국왕이 좌승상을 세습했다. 원의 권력편제에서 정동행성은 고려 정부와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 左右司·都事·郎中·員外郎·理問 등 행성의 관직은

---

44) 尹桓은 본래 武人으로 충혜왕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았으나, 정치적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인물이다. 충혜왕대에 代言이 되어 大護軍 曹益淸과 함께 충혜왕에게 가까이 하는 惡小輩를 제거코자 하여 宋八郎, 洪莊 등을 잡아 가두고 심하게 고문했다. 그 일로 뒤에 海島에 杖流되었고 원으로 도망쳤다. 충정왕대에는 政房提調 郭珊의 부정을 비판하고 그를 때렸다.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찬성사, 판삼사부사, 좌정승에 제배되었다. 고향인 漆原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가산을 기울여 구제하였다(『高麗史』 卷113 列傳27, 尹桓傳).

45) 한가귀와 원호는 곧 처형되었다. 원호는 元忠의 아들로 元顥와 형제이며 元松壽와는 6촌간이다. 중국 원정에서 돌아와 判三司事에 임명되었다. 홍언박을 대신하여 권세를 잡고자 하여 홍언박을 무고했고, 韓可貴·具榮儉 등이 기철 일파를 追捕치 않는다고 참소했다. 왕이 원호와 한가귀, 구영검을 순군에 하옥하여 대질시켰는데, 왕이 원호를 미워하여 李蒙古大를 시켜 옥중에서 격살시켰다(『高麗史』 卷107 列傳20, 元顥傳). 구영검과 한가귀는 判事 金成, 安祐, 申靑이 다시 왕에게 호소하여 처형되었다. 판사 김성은 구영검이 음행을 이유로 버린 옛 처의 외삼촌이었다. 왕이 무고임을 알고 사자를 보냈으나, 이미 처형된 뒤였다(『高麗史』 卷114 列傳27, 具榮儉傳).

원의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던 고려인들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원이 직접 임명하거나, 고려 국왕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역사적 또는 형식적 존재로 화하여 고려의 내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46] 정동행성이 고려정치를 좌우했다고 보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이다. 이 기관은 총독기관이 아니었고, 고려는 독자적인 정부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황제의 조칙을 받거나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거나, 혹은 새해를 맞이하는 등의 중요한 정치적 행사는 모두 행성에서 거행되었다. 행성은 원의 고려지배를 상징하는 기관이자 정치적 정통성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기관을 상징적·형식적인 기관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점은 충목왕대의 개혁기관인 整治都監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은 심지어 帝命으로 설치된 정치도감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정치도감의 책임자였던 王煦와 金永旽은 최고의 문벌과 이력, 명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지지까지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동행성의 월권에 대해, 그들은 중서성, 또는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 이외에 다른 아무 방법도 없었다. 정동행성 최고책임자는 고려국왕이었다. 실제로 김영돈은 먼저 충목왕에게 호소하고 있다. 충목왕은 정동행성의 관리들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왕이 정동행성의 관리들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왕후와 김영돈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원으로 떠나자, 정동행성 이문소는 이들을 추포하여 도감관과 함께 가두었다.[47] 요컨대 원하기만 한다면 정동행성은 고려정부를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권문세족들이 행성과 연합하여 특권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고려정부는 정동행성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두 기관은 형식상 평등했으며, 모두 독자적으로 원의 중서성에 直報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려정부는 정동행성을 통해 중서성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했다. 예컨대 조일신의 난이 진압되었을 때 百官은 정동행성에 上書하여, "엎드려 바라건대 황제에게 아뢰어 典刑을 밝게 바루어 後來를 경계하소서"라고 간청했다.[48] 또 원이 충혜왕을

46) 金庠基, 『高麗時代史』, p.514.
47) 『高麗史』 卷110, 列傳23, 王煦傳.
48) 『高麗史』 卷131 列傳44, 趙日新傳.

압송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을 때, 충혜왕은 위험을 감지하고 병을 칭탁하여 사신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고용보가 황제의 의심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위협하자, 충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정동행성에서 들었다. 그 도중에 사신들은 왕을 차고 묶어서 원으로 끌고갔다.[49]

이처럼 정동행성은 고려에서 원의 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왕과 주요한 정치가들 역시 정동행성 좌승상의 직책을 최고권력의 상징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50] 충숙왕의 사례를 보면 왕은 정동행성의 업무에 대해 최종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51] 그러나 뒤에 공민왕의 表文을 보겠지만, 왕들은 사실상 정동행성의 관리들을 제어할 수 없었다.[52] 그래서 고려정부는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느껴야 했다. 廉悌臣의 사례를 보면 정동성의 관리들이 "자못 威福(처벌하고 상주는 권한)을 弄"했다고 한다. 행성관리들은 원래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으나 독자적으로 공문서를 발송하여 재물을 수취했다.[53] 염제신은 특히 "田民의 詞訟은 모두 관계기관에

---

49) 『高麗史』 卷122 列傳32, 高龍普傳. 충혜왕에게 욕을 당했던 慶華公主는 충혜왕의 심복 贊成事 鄭天起를 정동성에 가두었다(『高麗史』 卷89 列傳2-后妃2, 慶華公主傳).

50) "충목왕이 죽자 德寧公主가 奇轍과 王煦에게 명하여 정동성의 일을 攝行하도록 하였다."(『高麗史』 卷131 列傳44, 奇轍傳) 권력공백 상태에서 국사를 장악하는 행위를 정동성 업무의 섭행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민왕이 李齊賢으로 하여금 "征東省事를 權斷"케 했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高麗史』 卷38, 恭愍王 卽位年).

51) 염제신이 원에서 관리생활을 하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귀국을 요청하자 "征東省 郎中을 제수하였더니 동료가 자못 威福을 弄하는지라. 염제신이 힘써 다퉈 裁抑한 바가 많았고 田民의 詞訟은 모두 有司에게 돌려주니 충숙왕이 賞歎하기를 「염낭중은 淸簡하다」라고 하였다. 左右司가 文移(공문서)에 서명하기를 청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 낭중도 서명하였느냐」하고 그렇다 하면 행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만 두었다."(『高麗史』 卷111 列傳24, 廉悌臣傳)

52) "辛裔는 일찍이 원의 명을 받아 楡岾寺都監을 맡았다. 이때에 姜居正·尹衡이 有備倉官이 되어 왕명으로 寺院의 田을 거두었다. 유점전도 역시 거두게 되었다. 유점도감이 유비창에 牒을 보내 田을 돌려달라고 하자, 강거정 등이 말하기를 「寺田은 일찍이 왕명에 의해 本倉에 속하게 된 것이니 가히 함부로 못한다」고 했다. 都監이 신예에게 고소하자, 그는 강거정 등을 잡고 (황제의) 聖旨를 좇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형은 곧 승복하였으나, 강거정은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신예가 더욱 노하여 강거정을 行省獄에 가두었다."(『高麗史』 卷23 列傳110, 辛裔)

53) 金鏞은 공민왕이 원에 추천하여 행성원외랑을 삼아 행성의 불법을 감독하도록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때에 행성의 관리들이 빈번하게 州郡에서 徵求하였다. 宣使 嚴淑이 永州.河陽에 이르러 公廨田稅를 거두고 또 綜布 6백 필을 거두어 驛을 통해 서울에 수송

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행성관들이 고려의 사법기관을 무시하고 당시 극심했던 재산분쟁에 관여했던 것이다. 또 "정동성관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臺官을 힐문코자 했는데, 그 때 李公遂가 監察大夫였다. 이에 염제신이 말하기를, 「臺綱은 마땅히 동요될 바 아니오, 李大夫는 일시의 호걸이다. 어찌 가히 욕되게 하겠는가」하니 일이 중지되었다"고 한다.[54] 감찰사는 국가 기강와 관련된 기관으로 매우 중시되었고, 왕도 처벌하거나 비난하기를 삼갔다. 그러나 행성관리들은 이를 꺼리지 않았던 것이다.

공민왕 5년, 친원파를 제거한 뒤 원에 보낸 表文은 이 기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 간절히 생각건대 세조 황제가 東征할 때에, 고려 국왕을 승상으로 삼고 행성관리를 국왕에게 맡겨 保擧(상관이 공적있는 屬官을 조정에 천거하는 것)케 하고 常租(戶稅)를 납입치 아니하게 하여, 다른 행성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후 계속하여 都鎭撫使·理問所·儒學提擧司·醫學提擧司를 세우게 되었으며, 요사이에는 행성관리가 모두 婦侍(부인과 환시)와 결탁하여 조정의 명령을 함부로 받아서, 威福을 멋대로 휘두릅니다. 저희 나라에 監察司·典法司가 있어서 형벌을 맡고 송사를 들어서 비리를 규정하는데, 행성관리가 사람들의 망녕된 호소를 듣고 여러 관청이 판단한 문서를 빼앗아 是를 非로 꾸며도, 누가 감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늑대와 호랑이 같이 미워하는데, 하물며 이제 행성관리로서 역적과 모의한 자가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左右司의 관리를 신으로 하여금 보거하게 하여 前弊를 밟지 말게 하시고 그 이문소 등 官司는 일체 고쳐버리십시오.[55]

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김용을 불러 문책하기를 「省吏가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한지 이미 오래인데, 어찌 법을 희롱하여 백성을 요란케 하느냐」"라고 했다(『高麗史』 卷131 列傳44, 金鏞傳).; "충목왕 원년에 整理都監이 狀啓하기를 「 ··· 행성이 지방으로 行移(行文移牒)하는 公事는 도평의사에 보고하여, 도평의사가 존무사와 안렴사에게 移文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근년 이래로 행성이 宣使와 螺匠 등에게 牌字를 주어 발송시켜 민간을 소요케 하니, 금후는 선사와 나장을 칭하고 폐를 일으키는 자는 칼을 씌워 서울로 보내게 하십시오」하였다(『高麗史』 卷84 刑法志1).

54) 『高麗史』 卷111 列傳24, 廉悌臣傳.

55) 『高麗史』 卷39.

공민왕의 지적처럼 행성관리들은 원 중앙정부의 유력자들과 결탁하여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고려 후기에 행성의 관리로 임명된 사람 중에는 李仁復·權溥·李穀·廉悌臣·洪彬처럼 훌륭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康允忠·裵佺같이 국가에 유해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든 원과 관계를 가졌던 인물들이다. 정동행성의 이러한 월권이 계속된다면 감찰·사법기관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의 혁신을 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충목왕대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궁극적으로는 개혁 자체가 불가능했다.

5월 壬寅에는 諸軍의 萬戶·鎭撫·千戶·百戶의 牌를 거두었다. 이것은 元이 제수한 武官職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李仁復을 통해 원에 보낸 表文에 그 폐단이 지적되어 있다.

> 세조 황제가 일본을 征東할 때 설치했던 것은 萬戶·中軍·右軍·左軍 뿐이었습니다. 그 후 增置하여, 巡軍과 合浦·全羅·耽羅·西京 등의 만호부는 모두 거느린 군졸은 없고 한갓 金符만 차고서 宣命을 자랑하며 평민을 召誘하여 망녕되이 戶計(戶丁)라 일컫고 州縣을 억눌러 감히 징발치 못하게 하니 심히 불편합니다. … 증치한 바 다섯 만호부 및 都鎭撫司를 빌건대 모두 혁파하십시오.[56]

일본정벌이 중단된 뒤, 원에서 임명한 군사기지의 지휘관들은 명목만 남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평민들을 兵籍에 올리고 私役에 종사시켰다. 고려 정부는 이 백성들에 대해 아무런 국가적 의무도 요구할 수 없었다. 형식상 원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6월 乙亥에는 원의 年號인 '至正'을 정지했다. 연호를 따르는 것은 臣屬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는 곧 복종에 대한 거부를 뜻했다. 이 조치는 압록 이서에서 승리를 거두고, 쌍성지역에서도 성공이 예견된 뒤에 이루어졌다. 거사에 성공한 뒤에도 공민왕은 원과의 완전한 단절은 아직 유보하고 있었다. 연호 정지는 상징적이지만,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이 날 교서가 발표되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정치를 다짐했다. 7월 丁亥에는 옛 관제를 부활시켰다. 충렬왕 1년(1275)에 개정되었던 관

---

56)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10月 戊午.

제는 원의 속국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2. 군사적인 대결과 失地 회복

세 번째 조치는 원에 대한 경계강화와 군사적 도전이었다. 공민왕은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故土 회복을 지시했다. 이것은 원의 공격에 대비할 뿐 아니라, 동조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거사 직후 공민왕은 두 방면의 북방지역에 군대를 파견했다. 評理 印璫, 同知密直司事 姜仲卿을 西北面兵馬使에 임명하여 압록 이서에 위치한 元의 8개 站(교통거점)을 공략하도록 했다. 또 東北面兵馬使로 임명한 密直副使 柳仁雨에게는 雙城지역을 수복케 했다. 西北面兵馬使로는 鄭暉, 江陵交州道都指揮使로는 鄭絪을 임명했다. 인당은 6월 癸丑에 압록강을 건너 3개의 참을 공파하는 데 성공했다. 일종의 선제공격이며 원과 맞서 싸울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공격에 앞서 인당은 서북면병마사에 함께 임명된 강중경을 즉결처형했다. 이유는 "강중경이 二心을 가졌"다는 것이었다.[57] 강중경은 연저수종공신이며 기철일파를 제거할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당황했다. 강중경의 이력으로 볼 때, 오히려 인당의 배반이 더 유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 여하에 따라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고려정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공민왕이 두 방면의 군대에 믿을만한 인물들을 하나씩 파견한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북면은 강중경, 동북면은 金元鳳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기철일파를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김원봉은 副使로 참전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강중경은 인당과 동등한 병마사였고 더구나 공민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당과 지휘권 장악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공민왕의 실수였다. 마키아벨리의 지적처럼, "일군의 지휘관은 한 명이어야 하며, 복수여서는 안된다."[58] 마키아벨리는 티투스 리비우스의 말을 인용하여, "비상 사태 아래서 방침을 결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한 사람에게 지도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57) 사실은 강중경이 술에 취해 늦게 도착하여 취기를 부렸다고 한다(『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5月 丁酉).

58) Machiavelli, *Discourses*, Book 3, chap. 15.

더구나 강중경은 술에 취해 늦게 도착했으므로, 軍法상 참형은 합법적이었다.

동북면의 상황도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쌍성 공격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 지역은 고종 45년(1258)에 몽고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원을 공격하여 고토를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기철 등이 이 지역과 연합하여 거사를 도모했기 때문에 배후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인우는 쌍성과 2백리 정도 떨어진 登州에서 10여 일이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 소식은 즉각 왕에게 알려진 듯 하다. 공민왕은 兵馬判官 丁臣桂를 보내어 李子春에게 내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인우가 왜 지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그는 쌍성공격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원에 대한 도전이었다. 만약 공민왕의 시도가 실패한다면 그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원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을까?

당시 江陵道存撫使는 李仁復의 동생인 李仁任이었다. 그는 유인우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인임은 탁월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는 유인우를 설득하여, 雙城總管府의 내분을 이용하자고 건의했다. 당시 쌍성총관은 趙小生이었는데, 그는 이 지역을 원에 바치고 항복한 趙暉의 曾孫이었다. 그의 숙부는 趙暾이었다. 그는 충숙왕때 고려 정부에 入朝하여 左右衛護軍에 제배되었으며, 왕이 죽은 뒤 귀향했다. 이인임은 조돈을 설득하여 조소생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성공했다. 조돈은 다시 조소생의 핵심참모인 趙都赤을 설득하여 離反토록 했다.[59] 유인우는 조돈 및 이자춘과 더불어 마침내 쌍성총관부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원에 함몰된 지 99년 만이었다.[60] 공민왕의 과감한 작전은 우선 완전히 성공했다.

이상과 같은 조치만 보면, 공민왕의 대원책은 매우 단호하고 강경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의 모험적이었다. 그는 일전불사를 분명히 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조치를 보면, 이러한 태도가 매우 전략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공민왕은 군사적 열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은 유사시 천도를 계획했던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을

---

59) 趙都赤은 공민왕 5년 6월 己未에 來朝했는데, 왕은 金牌를 下賜하고 高麗雙城地面管軍千戶에 임명했다(『高麗史』 卷39). 이 지위는 쌍성지역책임자를 뜻한다. 그러나 유인우는 그를 죽이고 쌍성지역 주민들을 수탈했다. 이로 인해 북방주민들이 이반했다(『高麗史』 卷111 列傳24, 趙暾傳).

60) 『高麗史』 卷111 列傳24, 趙暾傳. 조돈은 조선개국공신 趙仁璧과 趙仁沃의 부친이다.

때 이런 단호함은 거의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의적절하게 단호함을 표명할 수 있는 정치가는 많지 않다. 정치의 세계는 확실성보다 예견할 수 없는 많은 우연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라 해도 운명을 건 선택에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민왕은 단순할 정도의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그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고려 전체가 兵禍에 휩싸이게 될 터였다. 그러나 단호함은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결정적인 요소이다.[61]

원은 6월 癸亥까지 사태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 원의 사자가 기철을 大司徒에 임명하는 勅書를 가지고 국경에 도착하자, 西北面兵馬副使 辛珣은 칙서를 빼앗고 사신을 억류했으며 從者 3인을 죽였다. 사신은 밤에 도주하였다. 그러나 6월 癸丑에 이미 인당이 공격을 개시했으므로 그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정확한 탐색을 위해 파견되었을 것이다. 원은 고려의 節日使 金龜年을 遼陽에 가두고 "80만병을 동원하여 來討한다"고 선언했다. 서북면병마사 인당은 군대증원을 요청했다. 공민왕은 判書雲觀事 陳永緖에게 南京의 地相을 살피도록 했다. 이것은 유사시 천도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인심이 동요하여 지고 이고 南行하는 자가 저자에 가는 것 같"아, 정부는 가족을 이끌고 出城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컨대 당시 고려 정부와 백성들은 모두 이 싸움의 승리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민왕의 반원정책은 위태로운 도박이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원은 7월 己卯에 魏王太子를 파견했다. 고려는 侍從 2인만을 대동한 채 입국을 허용했다. 7월 丁酉에는 元帝의 宣旨를 휴대한 사신이 도착했다. 원은 뜻밖에도 유화책을 제시했다.

> 근자에 姦民들이 갑자기 변경에 분쟁을 일으켜 우리 封疆을 넘어 우리 인민을 요란케 하고 우리의 傳舍(驛傳의 廬舍)를 불태우고 우리의 行人을 막았다. 天憲으로 헤아려보면 처 죽임을 어찌 의심하리오. 그러나 생각건대 어줍잖은 賊徒가 혹시 죄를 그대의 나라에서 얻고 도망하여 무리를 呼聚한 것인가, 혹은 타국으로부터 온 무리가 망녕되이 그대의 백성을 일컫고 兵戈를 盜用하여 우리의 世誼를 이간한 것인가? 만약 진위를 묻지 않

61) Machiavelli, *Prince*, chap. 25.

고 대군이 한 번 출동하면 玉石이 俱焚할 것이니 실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 그대의 사졸을 동원하여 편의에 따라 招捕하거나 혹은 우리 天兵과 약속하고 힘을 합하여 협공해서, 반드시 靖國安民하여 길이 이전의 和互를 돈독케 하리니, 구체적으로 알아서 奏聞하도록 하라.[62]

원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려가 변명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철 등의 처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를 위해 관리를 파견하지도 않고, 고려 자신의 해명만을 요구했다. 화해 조건으로는 국경을 침범한 군대의 토벌을 매우 완곡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전례없는 일이었다.

고려 정부는 한 사람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7월 戊申에 인당을 처형하고 사태를 변명하는 표문을 보냈다. 그러나 그 표문조차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입국한 元使를 통해 발송했다. 전통적인 관계로 볼 때 이는 용서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고려는 원의 의도를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下愚는 생명을 아껴 다만 生全을 요구하는 것이니 大聖께서 情을 행하여 存恤을 가하시면 이에 망녕된 말을 진술하겠습니다. 황제께서 듣고 감동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小邦이 멀리 東極에 있어 隋唐의 盛時에도 다만 羈縻에 불과하였는데, 세조께서 등극하시자 우리가 천명을 밝게 알아서 남보다 먼저 歸附하여 대대로 적은 공로를 나타냈습니다. ··· (그런데) 뜻밖에도 賊臣 기철이 盧頑·權謙과 반역을 꾀하여 화근은 내었습니다. ··· 기철 등이 생각하기를 ··· 천하가 요란하고 兵甲이 바야흐로 치열하게 되니 一朝에 권세가 가면 몸이 능히 보존되지 못할까 하여 ··· 장차 우리 군신을 진멸함으로써 저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 賊徒를 포획하였으나 다른 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미처 申聞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고 모두 법으로 다루게 되었으니 진실로 황공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또 변방의 백성들이 틈을 타 망녕되이 움직이고, 혹은 奸人이 왕래하여 우리의 실정을 어지럽게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關防을 두어 출입을 삼가케 할 것입니다. 그 土吏가 강을 넘어 劫掠한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니므로 그 죄인을 考覈하여 국법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 雷霆같은 노여움을 거두시고 蕩蕩한 洪恩을 내리시어 불쌍한 微命을

62) 『高麗史』 卷39.

보존케 하여주시면, 4천여 리가 길이 濱海의 울타리가 되어 억만년을 두고 오로지 山岡과 같은 壽를 빌겠나이다.[63]

첫째, 표문의 내용은 매우 공손하여 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고려를 낮추어 '下愚의 생명', '哀哀한 微命'의 보존을 호소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은근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隋와 唐의 전성기에도 다만 羈縻에 불과" 했다는 표현은 고려가 원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완전히 복종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철 등이 "천하가 요란하고 兵甲이 바야흐로 치열하게 되니, 一朝에 권세가 가면 몸이 능히 보존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는 표현은, 원이 바야흐로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다. 셋째, 기철 등의 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처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원에 알리지 않고 처형한 점은 사과했지만, 기황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넷째, 쌍성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섯째, 그러나 국경침범을 인정하고 이를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려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표문은 고려가 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입장을 선회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책은 사실 전략적이었던 것이다. 혹은 공민왕이 단순한 강경론자나 이상론자가 아니고, 현실의 필요에 따라 강경해질 수도, 유연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정치적 자질이다. 공민왕은 원이 아직 결정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문제는 화해의 성격이었다.

공민왕은 양면적인 입장을 취했다. 첫째는 원에 충성을 다시 다짐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둘째, 그러나 기철 등의 처형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고려가 상실했던 권리였다. 鄭之祥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원은 사소한 사건조차 자국과 관련된 일은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이것은 원의 행위가 고려에서는 치외법권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공민왕은 원 황실과 관련된 사건이라 해도 고려정치의 틀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

63) 『高麗史』 卷39.

를 분명히 했다. 대원관계는 대폭적인 변모를 가져왔다. 고려는 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사대관계만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 점이 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표문은 아직 원이 고려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단지 문제를 기철 사건과 국경침범 문제에 한정시켰던 것이다.

印璫에 대한 처결은 비극적이다. 그의 성공은 오히려 불행을 초래했다. 그는 양국의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가는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기 위해 최고의 권력을 지향한다. 그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치에서 권력에 대한 지향은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더구나 정치에서 약자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대개 불명예스런 이유로 죽음을 당한다. 姜仲卿이 죽었을 때, 인당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의 충성이 의심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공민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인당을 처형함으로써 해결했다. 뛰어난 여성적 감수성과 더불어 이 무자비함은 공민왕의 정치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자기의 백성을 결속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인하다는 악평쯤은 조금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64] 문제는 잔인성 자체가 아니라, "그 잔인성이 잘못(badly used), 또는 적절하게 사용됐는가(well used)" 하는 점이다.[65] 잔인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곤란한 사태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이 필요했을 경우, 혹은 희생을 두려워한다면 악이 온존되는 경우이다. 그 반대로 비상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정치가는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당의 희생이 불가피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강중경의 처형문제는 공민왕의 실책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려는 원과의 군사적 대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5년 9월에는 楊廣道와 전라도에 使者을 파견하여 濟州人 및 禾尺·才人을 모아 서북면 병력에 합류시켰다. 또 廉悌臣을 西北面 都元帥, 刑部尙書 柳淵, 判司宰寺事 金之順, 上將軍 金元命을 副元帥로 삼아 국경에 파견했다.[66] 염제신을 파견하면서 공민왕은 "卿이 간 후에는

64) Machiavelli, *Prince*. chap. 17., pp.61-62. Wise Cruelty is True Mercy.
65) *Ibid.*, chap. 8, p.38.

내가 북방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전권을 위임하였다. 군대의 통수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은 정치적인 모험이다. 더구나 상황이 위험하고 유동적일 경우, 지휘자가 배신한다면 더욱 치명적이다. 그러나 지휘권에 제약을 두는 것 역시 위험하다. 이 경우 군사 작전은 대체로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민왕의 과단성은 이런 점에서 두드러진다. 제2차 홍건적의 난에서도 공민왕은 동일한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대의 대비상황은 좋지 않았다. 염제신은, "이제 군사들이 한여름에 북쪽에 와서 이미 겨울에 이르렀는데, 옷도 없고 신발도 없으니 무엇으로 추위를 막겠습니까. (이러니) 설사 이들을 전투에 투입한다 해도 어떻게 기꺼이 盡力하겠습니까"라고 상소하였다.[67] 고려의 군사제도는 원의 지배기에 붕괴되었고,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정규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10월 甲寅에 다시 원의 사신이 왔을 때, 공민왕은 군대의 굉장한 호위를 과시하면서 그를 맞이했다. 元帝는 "관용을 보이어 특히 그대의 허물을 容赦"한다고 말했다.[68] 어투는 거만했지만, 실질인 내용은 고려가 취한 여러 조치에 만족한다는 것이었다. 원은 이 글에서 쌍성문제를 다루지도 않았고, 다른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상처받은 국가의 위신을 은폐할 수 있었고, 첨예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었다. 원은 관계 변화를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우선 현상유지만을 바랬던 것이다.

고려는 비로소 李仁復을 원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두 통의 글을 보냈는데, 하나는 의례적인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원이 그 동안 고려에서 행했던 처사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담고 있었다. 첫째는 정동행성, 둘째는 원이 설치한 군사기지와 군지휘관, 셋째는 원에서 파견되는 사신들의 횡포를 다루고 있다. 넷째는 쌍성지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문은 먼저 쌍성지역이 원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쌍성지역에 대한 공격은 기철 일파와 제휴한 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옛 영토를 돌리시어 雙城·三撒의 이북에 關防 세우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섯째는 충선왕의 서자로 원에 체류하고 있는 德興君의 강제환국을 요청했다.[69] 기회가

---

66)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9月 癸未.
67) 『高麗史』 卷111 列傳24, 廉悌臣傳.
68) 『高麗史』 卷39.

온다면 원은 아마 그를 공민왕의 대안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 확실했다.[70] 1차 표문의 내용은 주로 기철 사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차 표문은 이 사건의 동기가 단순히 기철의 제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의 고려 지배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는 원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양국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의사의 표명이었다.

10월 丙子에는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樞密院使 金希祖를 원에 보냈다. 12월에는 賀正使를 파견했다. 11월 己卯에 원과의 관계 회복을 바란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 기철 일파를 제거하는 데 최고의 공을 세운 홍언박을 파면하고, 거사 직후의 인사에서 임명된 윤환, 허백, 유탁을 유배한 것이다. 원 정부와 상당히 친근한 염제신, 그리고 李齊賢이 발탁되었다.[71] 무엇보다도 기철 등을 제거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공신명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었다. 공신은 8년(1359) 6월에 가서야 선정되었다. 불필요하게 원 정부를 자극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공민왕은 이 사건을 통해, 불가피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 가는 그의 정치적 자질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치적 민첩함과 과단성, 치밀함, 유연성, 교활함, 잔인함. 이 모든 것이 이 사건 속에 녹아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사건이 지닌 정치적 의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려는 高宗이래의 원의 지배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다. 고려는 이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170년의 무신란 이래 처음으로 고려의 왕은 진정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신들의 지배도, 원이 지배도, 권문세족들의 지배도 없었다. 왕은 자신의 생각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정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공민왕은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개혁의 핵심적인 장애들은 대부분 제거되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있었다. 넷째, 그러나 새롭게 주어진 자유는 동시에 위험을 의미했다. 고려의 왕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왕권을 보

---

69)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10月 戊午.

70) 공민왕 11년 12월, 제2차 홍건적의 난으로 고려가 완전히 지쳐있을 때, 원은 덕흥군을 고려 국왕에 임명하여 공민왕을 파멸시키고자 했다. 공민왕 12년 7월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국왕의 印章을 회수했다. 동년 12월에는 군대를 파견했다. 13년 1월의 전투에서, 최영은 이들을 격퇴하여 공민왕을 위기에서 구원했다.

71) 『高麗史』 卷39.

호해야 했다. 왕들만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공민왕의 모험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40여 년 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에 의해 유지되었던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3년 뒤 홍건적의 1차 침입이 있은 이래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고려는 왜구와 북방민족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V. 지배와 독립의 정치: 同化와 異化

원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격렬하게 저항한 것은 대체로 농민과 천민들이었다. 무신집권자들과 귀족들은 대결을 회피했다. 그러나 원의 지배가 본격화되자 고려인들은 이를 온당한 것으로 수용했다. 고병익에 따르면, "여말 공민왕 때를 제외하고는 원에 대한 반항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원은 고려를 감독·감시하기 위해 관리를 굳이 파견할 필요가 없었다.[72] 고려 왕가와 국가 전통의 보전을 약속했던 쿠빌라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원의 일부로 복속시키려는 이른바 '立省策動'도 계속되었다. 왕들과 지각있는 지식인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원의 지배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 사례는 고려말의 대표적 학자이자 개혁적 정치가인 이제현이다.[73]

이제현의 경우는 동화와 이화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경우이다. 그러나 원의 지배에 완전히 동화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충선왕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즉위교서에서 "오직 나는 다행히 先帝(世祖)의 외손자요, 또 황제와 황태후의 眷愛를 받들어 아름답게도 공주와 더불어 드디어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

72) 高柄翊, "麗代 征東行省의 硏究(下)", 『歷史學報』 19, 1962, p.196.

73) 원의 지배에 대한 이제현의 정치적 입장은 그의 사학을 통해 알 수 있다. 원 지배의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로는 金哲埈, "益齋 李齊賢의 史學에 대하여", 『東方學志』 8, 1967.; 都賢哲, "牧隱 李穡의 政治思想硏究", 『韓國思想史學』 3, 1990, pp.571-579.; 鄭求福, "李齊賢의 歷史意識", 『震檀學報』 51, 1981. 반대 입장으로는 閔賢九, "白文寶硏究: 政治家로서의 活躍을 中心으로", 『東洋學』 17, 1987, p.256.; 閔賢九, "恭愍王의 反元的 改革政治에 대한 一考察: 背景과 發端", 『震檀學報』 68, 1990, p.52.; "토론속기록", 『진단학보』 51, 1981, pp.288-289.

다.[74] 그는 고려에 돌아 온 것이 아니라 파견되었다고 생각했다. 충선왕은 원의 武宗과 仁宗의 옹립에 공헌함으로써 원의 중앙정치에서 유력한 정치가로 성장했다. 인종은 그를 승상에 임명하기도 했다.[75] 부왕인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장사를 마쳤고, 바로 원으로 돌아갔다. 고려의 신하들이 귀국을 요청했으나 왕은 거절했다.[76] 원 정부도 귀국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77]

이런 점에서 충선왕의 내면은 고려인이라기보다 몽고인이었다. 충선왕은 고려보다 元의 정치세계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더 잘 발견하고 있다. 몽고인들은 잠시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를 동족이라기보다 결국 고려로 돌아가야 할 사람으로 이해했다. 귀국의 종용과 충선왕의 말년이 그 예증이다. 말년에 그는 고려인 宦官 伯顔禿古思의 모함을 받아 티벳에 귀양되었다.[78] 이 사건은 음모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결국 충선왕이 몽고의 정치세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충선왕이 내적이라면 충혜왕은 외적인 면에서 몽고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하다해도 그 배후에는 지배와 복종, 혹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숨어 있었다. 따라서 동화의 태도는 일종의 허위의식이며, 반성되지 않은 의식이었다. "親으로는 舅甥간이요 義로는 君臣간"이라는 문구는 원과 고려의 외교문서에서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원과 고려의 이중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

74) 惟予小子 幸爲先帝外甥 又承皇帝皇太后眷顧 嘉與公主 聿來于玆(『高麗史』 卷33, 忠宣王 卽位年 正月 戊申).

75) 『高麗史』 卷34, 忠宣王 5年 3月 甲寅.

76) 『高麗史』 卷33, 忠宣王 元年 4月 己卯.

77) "충선왕 4년 春 정월 朔에 왕이 원에 있었는데 황제와 태후가 왕께 詔하여 귀국하라 했다. 왕은 가지 않기 위해 朴景亮을 시켜 用事大臣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니 청컨대 秋收할 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하니 制하여 좋다고 하였다."(『高麗史』 卷34); "충선왕 5년 3월 甲寅에 長子인 江陵大君 燾를 황제에게 보이고 傳位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이에 燾를 策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때에 조정(元)에서 왕을 귀국시키고자 하므로, 왕이 辭避할 수가 없어서 이에 王位에 물러났다. 또 조카 延安君 暠를 世子로 삼았다."(『高麗史』 卷34.); "충선왕 7년 9월에 왕이 돌아와 大都(燕京)에 이르자, 황제가 中書省에 명하여 본국에 호송하여 安置하라고 했다. 왕이 머뭇거리고 觀望하면서 곧 떠나지 않았다."(『高麗史』 卷34)

78) 『高麗史』 卷122 列傳35, 任伯顔禿古思傳.

원의 지배는 동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고려는 국가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고려는 복종이 초래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 쇄신을 도모하지 않았다. 고종 42년(1255) 3월 丙午, "諸道의 군현에서 산성과 섬에 入保한 자를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 그 때 公山城에 合入된 군현 중 양식이 떨어지고 길이 먼 자는 아사한 자가 심히 많았다. 노약자는 (거꾸러져) 구렁을 메웠고 어린아이를 나무에 매어두고 가는 자가 있는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79] 그러나 정치가들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해 그들은 조금 더 불편해졌을 따름이다. 다음 기사는 그 점을 보여준다.

> (고종 42년 2월) 甲申에 崔沆이 酒饌을 왕에게 올리니 태자와 諸王을 불러 내전에서 향연하고 음악을 잡혀 밤새도록 놀다가 파하였다. 이때에 백성들이 많이 아사하였는데도 왕은 권신에게 제재되어 부득이 이 연악을 차렸던 것이다.[80]

원과의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元宗은 즉위 1년 뒤, "궁녀를 水房에 모아놓고 방탕하고 방종함이 절도가 없"었다고 한다.[81] 백성들은 정치가들의 무책임성과 몽고군의 잔인성에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蒙兵으로 인하여 6道宣旨使의 파견을 정지하고 別監을 썼는데, 이들은 도리어 백성들을 수탈하여 은총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

---

79) 『高麗史』 卷24. 또 高宗 42년 4월 癸巳에, "이 달에 도로가 비로소 개통되었는데 兵荒 이래로 해골이 들을 덮고, 포로로 되었던 백성이 京城으로 도망하여 오는 자들이 連絡不絶하므로, 都兵馬使는 1일에 米 1升씩을 주어 이를 구제하였으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80) 『高麗史』 卷25. 또 고종 23년 2월 "壬寅에 內殿에서 小宴할 때, 承宣 蔡松年이 말하기를, 「僕射 宋景仁이 평소에 處容戲를 잘한다」라고 했다. 송경인이 취하여 戲舞하는 데 조금도 부끄러운 빛이 없었다."; 고종 30년 10월 "丁酉에 龍山別監 朴益儒가 백성을 剝奪하여 聚斂하므로 法司가 私用임을 考檢하여 157필을 折價하여 징수하고 海島에 유배시켰다."(『高麗史』 卷24); 원종 즉위년 10월 "壬午에 諸功臣들이 江外에서 사냥하고 장군 李仁恒의 집에 모여서 주연을 베풀고 풍류를 벌려 새벽이 이르러서야 이에 파하였다. 先王을 겨우 장사지내고 嗣王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遊獵하고 宴樂하니 時議가 이를 기록하였다."(『高麗史』 卷26)

81) 『高麗史』 卷26, 元宗 元年 12月 庚申.

고 도리어 몽병이 오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한다.[82]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몽고에 투항하였다.

> (고종 45년 5월) 壬戌, 博州人이 병란을 피하여 葦島에 入保했다. 국가에서는 都令郎將 崔乂 등을 보내어 別抄를 거느리고 鎭撫하게 하였다. 그러나 州人들은 도리어 최예와 指諭 尹謙과 監倉 李承璡을 죽였다. 최예의 군사들이 모두 갈밭 사이에 도망하여 숨자, 뒤를 쫓아 모두 죽이고 드디어 몽고에 투항하였다.[83]

몽고의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몽고의 강력함뿐만 아니라, 고려의 지배층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다. 나아가 원의 지배하에서도 반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 고려는 진정한 내적 반성에 이르지 못했다. 충목왕대의 개혁은 고려 내에서 반성의식이 성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충선왕처럼 어떤 환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부패한 세계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순전히 개혁을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혁은 순진한 현실인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다. 충목왕대의 개혁은 그 점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공민왕은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공민왕이 특이한 점은 진정으로 개혁을 원했고, 충선왕과 달리 그 일을 자신의 정치적 삶으로 받아들였으며, 왕후와 달리 환상에 속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개혁이 내적인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동화를 믿지 않았으며, 상황에 매몰되지도 않았다. 공민왕은 충성과 현상유지에 대한 대가로 원에 의해 주어지는 '안전'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험이었다.

공민왕은 이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고려의 아이덴티티 회복을 위한 계기로 인식했다. 충선왕과 충혜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긴 지배기간과 어린 시절을 원에서 보낸 체험, 그리고 고려의 전통을 중시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위험 등으로 인해, 고려성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고려성의 위엄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지키려는 것은

---

82) 『高麗史』 卷24, 高宗 43年 2月 丙子.
83) 『高麗史』 卷24.

더욱 힘겨웠다. 그러나 공민왕은 5년 7월의 1차 表文에서, 한반도인들이 "隋와 唐의 융성기에도 단지 견제되는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84] 이런 표현은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 그는 또한 기철 제거 직후 내린 교서의 첫머리에서, "우리 태조께서 창업하시고 列聖이 서로 이어, 모두 능히 선대의 業을 紹述했기 때문에 衣冠禮樂이 찬연히 볼만했"다고 말했다. 이 교서에서 그는 "우리 祖宗의 法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적 목표중 하나라고 천명했다.[85] '의관예악'이나 '조종의 법'은 전통적인 어법에서 일종의 문명적 인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즉위초 즉시 몽고식 머리 모양과 복식을 버렸던 것이다.

공민왕은 오히려 고려가 異化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몽고로부터 그는 문명적인 지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점은 공민왕의 개혁이 지닌 독특한 반성의 성격이다. 그의 반성은 이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킬만한 현실적 신중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반성은 정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이었다. 이것은 고려가 오랜 세월동안의 곤란을 겪어오면서 새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탄생시켰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조선은 공민왕이 의도했던 고려 전기로의 복귀가 아닌, 고려의 철저한 부정과 중화성의 완성을 목표로 했다. 그 정신적 전통은 코스모폴리탄적인 원의 문명에 성리학을 소개한 許衡을 통해, 고려말의 성리학자들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

84)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7月 戊申.
85)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6月 乙亥.